

17세기 고전 장편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류준경(성신여대)

1.

우리 고전소설사에 있어서 17세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양식의 소설들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양식사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17세기 초 무렵에 전대의 傳奇소설을 갱신한 새로운 애정전기소설의 명편들과 17세기 말경에 장편소설의 명편이 대거 출현한 점이다. 물론 野談, 傳係 소설 등과 같은 양식이 출현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개척된 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전기소설과 장편소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 이 점에 대해 연구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소설과 관련하여서는 저서급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상당수 제출되었지만, 17세기 말경에 갑자기 나타난 장편소설에 대한 해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작품에 관한 의미 있는 작품론은 제출되었지만, 장편소설의 성립 곧 양식사적 맥락에서 17세기 장편소설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17세기 장편소설의 성립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소현성록>에 있었다. <소현성록>의 성립시기가 최소한 17세기 말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하소설의 성립이 18세기 이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장편의 소설이 갑자기 성립될 수 있었는가는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17세기 傳奇소설의 경우는 전대 전기소설을 바탕으로 그 양식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소현성록>과 같은 거질의 장편소설이 별안간 나타나게 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설 연구 상황에서 최근에 17세기 장편소설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치밀하게 살핀 중량급 있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정길수 저,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들배개, 2005)’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서는 정길수 선생의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인데, 최근 정길수 선생이 그 논문으로 나손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는 정길수 선생의 연구의 가치를 학계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저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고전소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흥미롭고 뛰어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억누르는 점을 느꼈던 것이다.

이제 정길수 선생을 따라서 17세기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을 탐색해보고, 그 억누름이 무엇이었던가 살펴보도록 하자.

2.

본 저서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2장과 3장 곧 장편소설 형성 배경과 형성 경로를 논의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의 소설사 이해보다 구체적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편소설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자.

여기서 저자는 17세기에 변화한 소설인식과 장편소설 출현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소설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17세기 무렵에 소설에 관한 뚜렷한 범주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논의한다. 소설이라는 범주가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다음으로 그 범주의 내용, 곧 소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저자는 17세기 초반의 주도적 장르였던 전기소설과 17세기 후반의 주도적 장르인 장편소설을 통해 소설 인식의 변화를 도출한다. 전기소설의 비극성이 지닌 사회비판적 성격을 통해, ‘불온한 소설’ 인식을 도출하고, 17세기 후반 가부장제의 옹호를 드러내는 장편소설을 통해 ‘교화의 도구’로서의 소설 인식을 도출한다. 따라서 17세기에 전기소설에서 장편소설로 주도적 장르가 변화한 사실의 지면에는

‘불온한 소설’을 교화의 도구로서의 소설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흐름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인식의 변화에 대한 저자의 인식은 장편소설 성립의 의의(?)를 파악하는 곳에서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를 파악하는 5장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장편소설 형성 배경으로 사회경제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범박하게 언급되던 기존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먼저 저자는 서울 인구의 변동에 대해 살핀다. 이전의 전기소설이 소수의 상층 남성만이 배타적으로 향유하던 소설이라면, 장편소설은 본격적인 독자층의 형성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의 인구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의 戶口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1657년과 1669년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보인다. 본격적인 소설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배경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인구증가를 통한 도시화의 진전, 그에 따른 소설 독자층의 증가를 통계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이러한 인구증가가 곧 장편소설의 독자를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시기에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란의 후유증과 만성적인 흉년으로 인해 오히려 극도의 궁핍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저자는 최상층의 급격한 부의 집중과 사치의 만연을 보다 주목한다. 최상층 사대부들이 국가자본을 이용하고 상인과 결탁하여 중개 무역, 은화 축적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치가 만연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장편소설은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독자층의 형성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니라, 최상층만의 배타적인 문화 사치품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분명 기존의 장편소설 형성 배경에 관한 범박한 논의를 뛰어넘는 치밀한 고찰이다.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장편소설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꼼꼼히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장편소설의 사회경제적 형성 배경에 대한 이러

한 파악은 당연히 우리 장편소설의 특수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상·하, 남·녀 등의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변화한 시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의 공존과 갈등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런데 17세기 장편소설이 상층의 ‘문화 사치품’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최상층만의 사치품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최상층만의 배타적인 시각이 침윤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이는 17세기 장편소설이 지닌 근본적인 결함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3.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에서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을 장을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이 동일한 논의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의 특징에 따라 해당 작품을 다루기보다는 각각의 작품에 따른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을 고찰하고 있기에, 각 작품별로 논의를 따라 가도록 하겠다.

3.1.

<구운몽>에 대해서는 이미 저자의 두 편의 논문에서 깊이 있게 검토된 바 있기에,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에 비해 보다 치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운몽>의 결을 감싸고 있는 환몽구조, 양소유의 삶의 여정에 따라 서사가 마련되는 편력구조, 그리고 팔선녀와 양소유의 관계에서 보이는 전기소설의 영향, 나아가 서사적 흥미를 창출하는 여러 모티브 등의 연원 등을 빠짐없이 살펴, 어떻게 <구운몽>이 창작될 수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찰하는 것은 전기소설의 영향이다. 팔선녀와 양소유의 개별적인 만남의 과정이 전기소설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나아가 이 관계가 전대 애정전기의 비극성과는 달리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차이점까지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고찰한 것은 환몽구조이다. 먼저 <調信>과의 관련을 논증하고, 나아가 동시기 중국소설인 <飛劍記>, <天緣奇遇>의 환원구조와 적강모티브, 여성편력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추출한다. 곧 당대 중국소설의 소설 관습과 <구운몽>의 영향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운몽>이 애정전기소설 중국 통속염정소설의 영향 아래 창작된 사실만을 논증한 것은 아니다. 애정전기의 비극성을 남녀의 조화로운 관계와 화락한 일부다처제의 모습으로 변용하고, 편력구조와 환원구조를 보다 세련된 형식으로 변모시켰으며, 통속염정소설의 서사적 흥미요소를 음란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차용하는 점 등에서 보다 수준 높은 소설 창작의 성과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운몽>의 장편화 방법에서는 양소유의 편력구조에서 드러나는 ‘구슬떼기’의 방법을 논의한다. 하지만 양소유의 다양한 편력의 나열만을 통해 장편화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들어 난양공주 중심의 또 다른 서사를 병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장편화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결말 부분에 이르러 일부다처제의 화락한 공존을 보이기 위해 직접적인 서사 전개와는 무관한 ‘靜的 敘事’의 활용을 논증한 부분은 이 논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장편화 과정을 살피는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운몽>의 장편화 과정을 빠짐없이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대 소설 전통과 당대 중국소설의 관습을 넘나들며, 치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구운몽>의 창작 과정 하나하나를 해명한 점은 이 글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한다.

3.2.

<창선감의록>의 형성 경로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점이

다. 하나는 명나라의 구체적 역사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대립이 그려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결연 장애가 그려진다는 점이다.

정치적 대립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서와 연의소설을 주목한다. 역사서와 연의소설을 통해 역사의 허구화와 군담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연의소설과는 달리 역사를 遠景으로 처리하여 허구적인 산물임을 보이지만, 동시에 철저히 실제 역사의 시간과 등장인물의 개인적 시간을 교직하여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결연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을 주목한다. 역사적인 배경을 차용하는 점에 있어서 <玉嬌梨>와의 관련을 보이고, 엄세번의 등장 장면, 관음상을 그리는 장면 등에 있어서 <五鳳吟>과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나아가 일부다처제의 논리가 <옥교리>에서 개발한 논리와 맥이 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여성고난에 있어서 예언과 그 실현이 드러나는 점은 재자가인소설이나 <형차기>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성수난구도에서는 애정전기, <형차기> 등의 중국문학의 영향과 열녀전, <최척전>, <강도몽유록> 등의 우리 문학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앞서 <구운몽>의 고찰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을 밝히는 것에서 논의가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면서도 철저히 허구적 역사를 만들고, 일부다처제 합리화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며, 여성 수난 구도에서 승고미는 받아들이지만 환멸의 정서는 배제하고, 예언구도에서 보이는 숙명론을 이용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고 흥미성을 강화하는 점 등은 연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창선감의록>만의 독특한 면모라는 사실을 힘써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선감의록>의 장편화 방법 역시 작품 형성의 경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설명된다. 재자가인소설과 역사소설을 빌려와 새로운 형태의 장편소설을 만든 것이 <창선감의록>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허구화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임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정교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한다. 동일 시간 내의 다양한 사건을 정확히 그려내는 모습과 주인공의 이동 경로에 따른 정확한 동선을 그려내

는 모습을 통해, '창작일람표'와 같은 창작노트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곧 창작일람표와 같은 창작노트를 통해 장편화가 시도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다음으로 <창선감의록>의 갈등에 대해 살핀다. 1, 2회에서는 화부의 가정갈등이 중심이 되고 정치적 대립이 맹아의 상태로 드러나다가, 3, 4회에 들어 정치적 대립이 직접적인 서사적 추동력이 되어 여성수난이 드러나고, 5, 6회에서는 정치대립, 모자갈등, 처첩갈등, 동서갈등, 고부갈등, 선악갈등 등 거의 모든 갈등이 집중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처음에는 가정 내 갈등과 정치대립을 布置해 두었다가, 갈등의 파생과 전이를 통하여 前 단계의 갈등을 약화·해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 다양한 갈등을 범한 등의 악인을 통해 중첩시켜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다양한 갈등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갈등의 파생과 전이를 통해 갈등을 중첩시켜 속도감 있는 갈등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장편화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은 다양한 갈등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기때문에, 작품은 설화적인 뼈대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창선감의록>에서 그러한 결함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를, 곳곳에 풍부한 인물형상화와 서사 진행의 중간 점검의 역할을 하는 정적 서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창선감의록>이 연의소설과 중국 재자가인 소설, 그리고 가문소설의 형식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장편소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창선감의록>은 가정소설의 범주로 다루어진다. 이는 이전 소설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공간과 가정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주역 인물과 보조적 인물들이 다양한 사건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가정을 통해 장편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게 된 연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장편화의 과정에서 답해야 할 핵심이 아닐까? 물론 이를 <사씨남정기>에게 넘겨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사씨남정기>는 분량상 장편소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언급하

였기에, <사씨남정기>에서 마련된 방법은 직접적인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대의 소설에 비해, <사씨남정기> 역시 장편화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3.

<소현성록>의 장편화 과정을 논의하려면 먼저 <소씨삼대록>의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소현성록> 本傳(소씨삼대록 제외부분)이 먼저 창작되고, 다른 작가에 의해서 <소씨삼대록>이 창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전’은 1692년 이전에 창작되었고, <소씨삼대록>은 1712년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보았다.

<소현성록>의 형성 경로와 관련한 논의는 <구운몽>과 <창선감의록>에 비해 풍부하지는 않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소현성록>[본전]은 이전의 소설전통(중국을 포함하여)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소현성의 외유·모험 장면에서 <包公演義>의 영향이 감지될 뿐이고, 이 역시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 외에 세대록이라는 형식에 있어서 <楊家將演義>와 같은 연의소설과의 영향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정도이다.

<소현성록>의 형성 경로와 관련하여 傳·行狀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인데, 이 책에서는 그 형식이 아니라 여성인물의 인물 형상에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행장의 인물형상과 <소현성록>의 인물형상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규범적 여성상이 부각되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전·행장과 <소현성록>의 인물형상의 유사성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지, 전·행장의 인물형상을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곧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이 점은 전체 논지전개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일 뿐이다.

<소현성록> 본전에 비해 <소씨삼대록>에서는 흥미로운 설정이나 장면축조 방식에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영향이 감지된다고 하

었다. 하지만 장편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소현성록>의 장편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운몽>, <창선감의록>에 비해 선행 연구에서 그리 많이 나아간 것은 아닌 듯하다. <소현성록> 작품 자체가 분량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소현성록>과 같은 방법으로 대하소설이 많이 창작되었기에 장편화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이미 해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하소설에서 '정적 서사'가 확대된다는 사실은 <완월회맹연> 연구에서 '장편 전개'라는 용어로 정병설 선생이 검토한 바 있고, 구분기 선생 역시 '서술구조'를 주요한 용어로 주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현성록> '본전'은 갈등을 쉽게 마무리하고, 갈등의 맹아조차 억제하면서도 '정적 서사'만을 통해 분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한 점은 <소현성록>의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소씨삼대록>의 장편화 방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사건의 유형적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그에 머물지 않고, 한결을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이야기)을 서술하는 분절식 구조임을 치밀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소씨삼대록>에서 마련된 세대록 형식을 통해 무한 확장의 손쉬운 방법이 마련되고, 나아가 이것이 이후 대하소설 대량 생산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3.4.

이상의 장편소설 형성 과정과 장편화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장편화 방법'이라는 개념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소설을 검토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먼저 '장편화 방법'이라는 개념어의 문제이다. 이 용어는 현재 고전소설 연구와 관련하여 빈번히 쓰이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개념적인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장편화 방법'이란 변화를 내포하는 개념어이다. 변화되기 이전과

변화된 이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원천을 지닌 작품을 장편으로 만드는 경우나, 혹은 동일한 장르관습에 기댄 작품이 장편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4장 ‘17세기 장편소설의 장편화 방법’은 짧은 형식을 긴 형식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제시된 것은 아닌 듯하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장편화 방법’이 아니라 ‘장편소설의 창작 방법’이다. 그것도 ‘17세기 장편소설의 창작 방법론’이 아니라 개별 장편소설 작품의 창작 방법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 책의 연구사적 의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밝혀낸 바는 고전소설 연구사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소설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보자.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당대 중국소설의 전통을 아울러 검토한 점은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소설사의 지형을 ‘일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고전소설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인 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용과 창안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펼친 것은 현재 명·청 문학의 영향만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연구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간 뛰어난 연구성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소설에 관한 고찰이 연구시각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것임을 저자 역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319면부터 322면까지 별도로 이 점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중국소설까지 두루 살피는 연구시각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점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중국소설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인 대목들이 단순한 ‘전과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당대 소설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어떠한 토양에서 성립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과정”(322면)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 ‘토양’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세기 장편소설이 창작될 때, 중국소설의 수용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17세기 중국소설 수용과 관련한 자료가 일천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작품명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저자가 검토하고 있는 통속염정소설과 재자가인소설의 많은 작품이 수용되었으

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도 중국소설의 가장 적극적인 독자였을 왕실에서 만든 『중국소설회모본』에서 74종의 중국소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때는 1762년으로 18세기 후반이다. 또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윤덕희의 『字學歲月』과 ‘小說經覽者’는 각각 1744년과 1762년에 작성된 것이다. 『자학세월』에서 44종, ‘소설경람자’에 128종의 소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84종의 차이는 1744년부터 1762년 사이에 새롭게 구해 본 소설이라 판단된다. 1744년과 1762년 사이에 이처럼 많은 숫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중국소설이 수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윤덕희의 아버지인 윤두서가 적극적인 소설 독자였음을 고려할 때(“乃至稗官小說 無不涉獵 以爲多識之助”, 윤두서 행장, 1744년에 윤덕희(당시 60세)는 이미 자신이 볼 수 있는 소설은 거의 다 보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편소설 형성의 토양이 되는 중국소설의 독서, 곧 중국소설의 소설 관습을 익힐 정도의 독서는 18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

이제 마지막으로 17세기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드디어 저자는 17세기 장편소설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기실 장편소설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에 관한 논의는 주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접근에 해당된다. 주제적인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를 고찰하기 보다는 수사학적 맥락에서 작품을 고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를 논하는 이 장에 들어 저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17세기 장편소설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소설 인식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그 단초를 이미 보인 바 있기도 하다. 이제 이를 좀 더 추적해 보자.

17세기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를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두 번째는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는 수용과 창안의 변증법, 전면성의 추구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수용과 창안은 앞서 3, 4장에서 논의

되었던 측면이고, 전면성의 추구는 장편소설이면 으레 제시될 수 있는 측면이다. 기실 ‘전면성의 추구’ 항목에서 실제적인 ‘전면성’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삶의 어떤 부분이 전면적으로 고찰되는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다양한 인물의 형상, 서사무대의 확대 등의 형식적인 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 스스로 17세기 장편소설이 삶의 전면성을 그려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점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장편소설 형성의 두 번째 ‘의의’(?를 논하는 곳에서 드러난다.

장편소설 형성의 두 번째 ‘의의’는 지배이념과 소설의 결합에서 찾고 있다. 17세기 장편소설 세 작품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부재’라는 초기 설정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이들 작품에서 ‘아버지 되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본다. ‘아버지 되기’란 무엇인가. 이 시기 ‘아버지 되기’는 가부장의 역할, 나아가 가부장제의 모델을 찾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작품이 제시하는 ‘가부장제’는 심각한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구운몽>은 차등의 질서[가부장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체제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은 규범화된 인물, 곧 성인과 성녀의 형상을 통해 규범적 질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효의 강조를 통해 부자 관계에서 보이는 차등의 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 이를 부부 관계로 전이시켜 가부장제를 움직일 수 없는 제도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창선감의록>에 보이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설득의 모습도 사라진 채, 이미 주어진 제도로 일부다처제를 보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현성록>은 최소한의 서사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상층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순응과 역행에 따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나란히 제시한 ‘도덕 교과서’나 진배없는 형식”(354면)이 되고 만다. 이제 장편소설은 “상층 남성 중심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형식”(354면)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차등의 질서만을 강화할 뿐이니 장편소설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상층 남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355면)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결말로 나타나는 이들 장편소설의 낙관주의는 보수적인

숙명론에 기반한 체제 유지적 성격을 띠는 허상일 뿐이다. 이제 17세기 우리 장편소설의 형성과정은 타자와의 소통은 배제한 채 “배타적인 상층 중심의 세계를 공고히 하는 도구”(367면)를 형성한 과정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저자가 17세기 장편소설의 연원과 장편화 방법 등의 치밀한 고찰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이 책을 읽는 필자를 답답하게 만든다. 힘들고 어렵게 고찰한 장편소설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억압기제”로서의 소설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힌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17세기 장편소설의 한계를 “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장편소설의 빼어난 성취와 나란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말을 잊지는 않았다. 하지만 “빼어난 성취”라는 것은 기법적인 면이고, 그 기법을 통해 도달한 성취는 ‘억압기제’로서의 소설 생산이라는 점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구운몽>에서 여성을 통해 진정한 友道를 보이는 것은 허상이며, ‘규방소설’은 여성의 ‘교양’을 가장한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통로일 뿐이다.

이제 우리 고전소설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성취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17세기 소설사는 ‘억압기제’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고전소설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저자가 앞으로 걸어갈 행보는 어디일까? 박사논문의 말미에서 우리 장편소설에서 “훼손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피는 작업을 후속과제”로 삼겠다는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리고,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만약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소설의 면모를 밝히는 것이 연구과제라면, 그것은 숨겨진 억압에 관한 폭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제 ‘고전’은 해체되고, 억압적 성격의 폭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자의 시각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고전소설 연구자가 지닌 어떤 ‘냉소’는 이러한 연구대상의 성격과 연결될 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어쩌면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과정을 해명하였다는 성과보다 고전소설 연구자가 지닌 ‘아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논쟁의 부면에 올려놓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к с і

KCS I